

국제금융시장 8월 동향 및 9월 전망

미래전략개발부 경제조사팀
윤 영 교 (yoonyk@kdb.co.kr)

8월 주요 경제·금융 이벤트

- **美 7월 소비자물가는 2개월 연속 하락(3.5% → 3.4%)**
 - 에너지 가격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하락 속도가 빨라졌으며, 식품·서비스 등 주요 품목들의 가격이 완만한 하락세를 시현 중
- **美 정부부채가 40조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재무부는 국채 매입(바이백) 규모 확대 결정**
 - 국채 발행량 증가가 금리 상승의 요인 중 하나라는 견해가 부각되었으며, 재무부는 만기 10년 이상 채권 매입 가능 규모를 확대(회당 USD 20억 → USD 40억) 결정
- **한국은행은 2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(2.75% → 3.00%) 단행**
 - 한은 총재는 긴축이 기본적인 통화정책 기조임을 분명히 하였으나, 금융시장에서는 점도표를 근거로 최종 목표 금리수준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우세

□ (환율) 8월 원/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와 한은 통화정책 영향으로 하락, 9월에도 하락이 예상되나 주요 중앙은행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영향으로 하락폭은 제한될 전망

- 8월 원/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시장 內 달러 약세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매파적 정책 기조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 시현
 - 美 7월 소비자물가 하락과 재무부의 국채매입 계획 발표 등으로 글로벌 달러 약세*가 이어진 한편, 한국은행이 연속 금리인상 단행과 함께 향후 완만한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며 환율 하락을 견인

* 달러인덱스(p): 101.19('26.6.30일) → 99.91(7.30일) → 99.63(8.17일) → 99.43(8.31일)

- 9월 원/달러 환율은 하락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, 글로벌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와 외국인 자금 이동 가능성 등으로 하락 속도는 느려질 전망
 -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와 수출 호조 등으로 원화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나, 주요국 통화정책회의 집중* 및 분기말 국내 주식시장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은 환율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

* 9.10일(목) ECB 통화정책회의 / 9.16일(수) 美 FOMC / 9.18일(금) 日 BOJ 금융정책위원회

원/달러 환율 및 달러 인덱스

	'26.3월말	'26.6월말	'26.7월말	'26.8월말	전월대비
원/달러 환율	1,515.7	1,549.4	1,425.4	1,367.4	△5.2%
달러 인덱스	99.893	101.163	99.914	99.428	△0.5%

자료 : 연합인포맥스

□ (금리) 8월 한·미 시장금리는 AI 투자 증가 및 미국 재정적자 심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해 상승, 9월에는 주요국 통화정책 결정을 관망하며 소폭 상승 전망

- 8월 금리는 국제유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음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미국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계감이 부각되며 상승
 -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 수행과 감세 정책 등으로 미국 정부부채 증가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과 AI투자가 견인하는 경기회복 기대가 인플레이션 및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우려로 이어지며 금리 상승
- 9월 금리는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와 재정정책의 영향을 받으며 소폭 상승 전망
 - 한국은행이 8월 금통위에서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, 美 연준이 8월 고용지표 및 소비자물가 결과에 따라 9월 FOMC에서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시장금리에 부담 요인
 - 美 재무부가 시장개입을 통해 금리 안정을 유도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시장금리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전망

한국 및 미국 국채금리

	'26.3월말	'26.6월말	'26.7월말	'26.8월말	전월대비
한국국채 3y	3.552	3.703	3.758	3.838	+8bp
한국국채 10y	3.879	4.091	4.261	4.313	+5bp
미국국채 2y	3.829	4.155	4.265	4.327	+6bp
미국국채 10y	4.314	4.435	4.709	4.739	+3bp

자료 : 연합인포맥스

□ (주가) 8월 한·미 주가지수는 금리 상승과 AI 성장 지속성에 대한 우려로 횡보, 9월에는 기업실적발표 공백 속에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로 횡보세가 지속될 전망

- 8월 주가지수는 인플레이션과 시장금리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한 한편, AI 산업의 성장 정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며 횡보
 - 미국 주식시장은 바이오 등 AI 외 산업의 성장성이 부각되어 비교적 변동성이 크지 않았으나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한국 주식시장은 높은 변동성을 시현
- 9월 주가지수는 주요 AI 관련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 마무리 영향으로 경제지표 및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강화되며 8월의 횡보세를 이어갈 전망
 -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이 확대된 가운데 단기간에 집중된 주요 선진국 통화 정책회의 일정이 투자자들의 결정에 어려움을 가중할 전망

한국 및 미국 주가지수

	'26.3월말	'26.6월말	'26.7월말	'26.8월말	전월대비
코스피	5,277.3	8,476.5	6,595.4	6,820.0	3.4%
코스닥	1,107.1	916.2	719.8	834.3	15.9%
S&P500	6,528.5	7,499.4	7,489.7	7,686.1	2.6%
나스닥	21,590.6	26,213.7	25,373.8	26,370.9	3.9%

자료 : 연합인포맥스